

BASIC BIBLE TEACHING # 5

THE JEWS, GOD'S PEOPLE

① In the last lesson we learned about the promise made to Abraham. He was a remarkable man. When he was 70 years old, God spoke to him in a dream.

② He told him to leave his family in the city of Ur where he lived. He told him to make a journey to another country, which God would show him. He traveled over 1200 miles until he came to the land of Canaan.

③ God told him that he and his descendants would inherit the land. These descendants of Abraham are the Jews.

Genesis 13:14-17

"Lift up your eyes from where you are and look north and south, east and west. All the land that you see I will give to you and your offspring forever.

I will make your offspring like the dust of the earth, so that if anyone could count the dust, then your offspring could be counted.

Go, walk through the length and breadth of the land, for I am giving it to you."

④ When Abraham died he did not own the land. In fact he had to buy a piece of ground for a burial plot. He did not live to see his descendants become a great nation as God had promised. He and his wife, Sarah, had only one son. His name was Isaac.

⑤ Isaac had two sons called Esau and Jacob. Esau was not interested in God. Jacob was a faithful man who wanted to learn about the promises. God repeated them to him and changed his name to

성서의 기초 강좌 제 5 과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

지난 과의 공부를 통해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 대해 배웠다. 그는 주목할 만한 사람이었다. 그의 나이 70 세에 하나님께서는 꿈에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그가 살고 있었던 도시 우르와 그의 가족을 떠나라고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실 다른 지방으로 여행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다. 그는 가나안에 도착할 때까지 1200 마일 넘게 여행하였다.

하나님은 그와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유대인이다.

창세기 13:14-17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네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니, 너는 가서 길이로도 걸어 보고, 너비로도 걸어 보아라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그는 소유하고 있던 땅이 없었다. 사실 그는 매장을 할 정도의 땅을 사야만 했다.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바 대로 그의 자손들이 커다란 민족을 이루는 것을 볼만큼 살지 못했다. 그와 그의 아내 사라에게는 단 하나의 아들만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이삭이었다.

이삭은 에서와 야곱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다. 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 야곱은 약속에 대해 배우기를 원하는 신실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을 거듭 말씀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왕자'라는

Israel which means 'a prince with God'.

⑥ Israel had 12 sons and his favorite was called Joseph. When he was only 17, his brothers attacked Joseph. They were jealous of him and sold him as a slave. He was taken into the country of Egypt where he became a great man. He was in charge of the entire kingdom and looked after it for the king of Egypt.

⑦ Later there was a famine in Canaan and Joseph's brothers came to Egypt to buy food. Joseph told them who he was and invited them all to come and live in Egypt. So Israel and all his family went to live there.

⑧ God began to fulfill his promise to them and they had many children. The king of Egypt was afraid of them and turned them into slaves. There was now a great number of them, like the dust of the earth. They still did not have their own land. They prayed to God and he remembered what he had promised them.

Exodus 2:23-25

'During that long period, the king of Egypt died. The Israelites groaned in their slavery and cried out, and their cry for help because of their slavery went up to God. God heard their groaning and he remembered his covenant with Abraham, with Isaac and with Jacob. So God looked on the Israelites and was concerned about them.

⑨ God spoke to one of the Jews, a man called Moses. He sent him to the king of Egypt to demand that the king let the children of Israel go free. God wanted them to go back to the land of Canaan. Then he would give them the land as he had promised.

Exodus 3:6-8

'Then he said, "I am the God of your father, the God of Abraham, the God of Isaac and the God of Jacob." At

의미를 가진 이스라엘로 그의 이름을 바꾸셨다.

이스라엘은 열두 아들이 있었는데 가장 사랑하던 아들은 요셉이었다. 요셉의 나이 겨우 17 세 무렵 형들이 그를 공격했다. 그들은 요셉을 시기했고 노예로 팔아 버렸다. 그는 애굽으로 끌려갔고 나중에 그 곳에서 높은 사람이 되었다. 그는 온 나라의 일을 맡아 애굽의 왕을 위하여 나라를 돌보았다.

나중에 가나안에 기근이 일어나 요셉의 형들은 식량을 사기 위해 애굽으로 왔다. 요셉이 자신에 대해 말했고 그들 모두 애굽에 와서 살도록 초청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그의 모든 가족이 그곳에서 살기 위하여 갔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루기 시작하셨고 그들은 많은 자녀를 낳았다. 애굽의 왕은 그들을 두려워하여 노예로 만들었다. 이제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이 되었다. 그들은 여전히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다.

출애굽기 2:23-25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의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하나님은 모세라는 유대인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그를 애굽왕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놓아주도록 요구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다. 그러면 약속대로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었다.

출애굽기 3:6-8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this, Moses hid his face, because he was afraid to look at God.

The LORD said, "I have indeed seen the misery of my people in Egypt. I have heard them crying out because of their slave drivers, and I am concerned about their suffering.

So I have come down to rescue them from the hand of the Egyptians and to bring them up out of that land into a good and spacious land, a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

¹⁰ The story of how God forced Pharaoh, king of Egypt, to let Israel go is one of the great stories in the Bible. You should read it for yourself in Exodus chapters 6 to 14. Israel went into Egypt as a family of 70 people and came out a great nation of 600,000 men with women and children.

¹¹ They had a difficult journey through a desert before they reached the promised land. God said that he would be with them in the journey. He gave them food every day. He gave them water to drink when they were thirsty. He gave them his laws to live by and told them that he would bless them if they kept them. God wanted them to be his special people.

¹² Sadly they did not believe God. Because of this all the adult men and women who came out of Egypt died in the desert. Only their children entered the land of Canaan which God had promised to Abraham. He now called it the land of Israel.

¹³ Many years later, Israel had a king called Solomon. He was the son of David, the king who received promises from God. Solomon was the most successful king who ever reigned over Israel.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뵈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주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하나님께서 애굽왕 바로를 강요하여 이스라엘을 놓아주게 한 이야기는 성서에서 가장 위대한 내용 중 하나이다. 여러분은 출애굽기 6 장부터 14 장까지 꼭 읽어야 한다. 70 명의 가족으로 애굽에 들어갔던 이스라엘이, 나올 때는 여자들과 아이들과 600,000 명의 남자들로 구성된 커다란 민족이 되었다.

그들은 약속된 땅에 도달하기까지 사막을 통과하는 험난한 여행을 했다. 하나님은 이 여행에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매일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들이 목마를 때는 마실 물을 주셨다. 백성들이 그의 법에 따라 살아가도록 법을 주셨고 그들이 잘 지키면 축복하여 주실 것도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그들이 그의 특별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다.

슬프게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온 모든 성인 남자와 여자는 광야에서 죽었다. 오직 그들의 자녀들만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는 이제 이곳을 이스라엘의 땅이라고 부르셨다

여러해가 지나고 이스라엘에 솔로몬이라는 왕이 나타난다. 그는 하나님으로 부터 약속을 받았던 다윗왕의 아들이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들 중 가장 성공적인 왕이었다.

1 Kings 4:20-21,25

'The people of Judah and Israel were as numerous as the sand on the seashore; they ate, they drank and they were happy

And Solomon ruled over all the kingdoms from the River to the land of the Philistines, as far as the border of Egypt. These countries brought tribute and were Solomon's subjects all his life...

During Solomon's lifetime Judah and Israel, from Dan to Beersheba, lived in safety, each man under his own vine and fig-tree.

1 Kings 4:29-31

'God gave Solomon wisdom and very great insight, and a breadth of understanding as measureless as the sand on the seashore. Solomon's wisdom was greater than the wisdom of all the men of the East, and greater than all the wisdom of Egypt. He was wiser than any other man.'

¹⁴ God began to fulfil his promises to Israel. Sadly Solomon was not faithful to God. Other kings followed him. Some of these were wicked and disobeyed God. He punished them by sending other countries to fight against them.

¹⁵ Finally God sent His son, Jesus Christ, to ask Israel to repent and to turn back to him. When they crucified Jesus, God was very angry and nearly destroyed them completely. He sent a fierce nation called the Romans to invade Israel and to take the Jews into captivity again. They stayed out of the land for nearly 1900 years. But God never forgot his promises to his people, Israel.

열왕기상 4:20-21,25

유다와 이스라엘에는 인구가 늘어나서, 마치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사람이 많아졌지만, 먹고 마시는 것에 모자람이 없었으므로, 백성들이 잘 지냈다.

솔로몬은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영토에 이르기까지, 또 이집트의 국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왕국을 다스리고, 그 왕국들은 솔로몬이 살아 있는 동안, 조공을 바치면서 솔로몬을 섬겼다.

그래서 솔로몬의 일생 동안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았다.

열왕기상 4:29-31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한없이 많이 주시니, 솔로몬의 지혜는 동양의 어느 누구보다도, 또 이집트의 어느 누구보다도 더 뛰어났다.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지혜로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그의 약속을 이루기 시작했다. 아쉽게도 솔로몬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다. 다른 왕들은 그를 추종했다. 이들 중 몇 명은 악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를 보내어 그들과 대항해 싸우게 하는 것으로 그들을 벌했다

마침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았을 때 하나님은 매우 진노하셨고 그들을 거의 완전히 멸망시켰다. 하나님은 흉포한 민족인 로마를 이스라엘로 보내 침공하게 하시고 유대인을 다시 포로로 취하게 하셨다. 그들은 거의 1900 년 동안 그 땅밖에 머물렀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셨다.

Jeremiah 30:10-11

"So do not fear, O Jacob my servant; do not be dismayed, O Israel,' declares the LORD. I will surely save you out of a distant place, your descendants from the land of their exile. Jacob will again have peace and security, and no-one will make him afraid.

I am with you and will save you,' declares the LORD. 'Though I completely destroy all the nations among which I scatter you, I will not completely destroy you. I will discipline you but only with justice; I will not let you go entirely unpunished.'

⑯ Within the last 50 years, many Jews have returned to the land that God promised them. In 1948 the State of Israel was formed. This is a great sign to us. It reminds us that God never forgets his promises to his people. Jesus Christ will return to rule over the whole earth from Jerusalem. Then Israel will have peace and safety forever.

Questions

1. What is the name of God's people?
2. Who was asked to leave the city of Ur?
3. Who became a great ruler in Egypt?
4. Why did God become very angry and nearly destroy Israel?
5. When will the promises to Israel be completely fulfilled?
6. Who was the most prosperous king to rule over Israel?

예레미야 30:10-11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아, 너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나 주의 말이다. 보아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여 데려오고, 포로로 잡혀 있는 땅에서 너의 자손을 구원할 것이니,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평안하고 안정되게 살 것이며,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고 살 것이다.

내가 너에게로 가서 너를 구원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를 쫓아 여러 나라로 흩어 버렸지만, 이제는 내가 그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그러나 너만은 멸망시키지 않고, 법에 따라서 징계하겠다. 나는 절대로 네가 벌을 면하게 하지는 않겠다.

지난 50 년 동안 많은 유대인 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땅으로 돌아왔다. 1948 년에 이스라엘 국가가 수립되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커다란 암시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세상을 다스리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다. 그때 이스라엘은 영원히 평화롭고 안전할 것이다.

질문

1.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은 무엇인가?
2. 우르에서 떠날 것을 명령 받은 사람은 누구인가?
3. 애굽의 위대한 통치자가 된 사람은 누구인가?
4. 하나님은 왜 매우 진노하셨고 이스라엘을 거의 멸하셨나?
5.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은 언제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인가?
6. 이스라엘을 가장 번영하도록 다스렸던 왕은 누구였나?